

# 표준어 규정

## 제 1 부 표준어 사정 원칙

### 제 1 장 총 칙

제 1 항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2 항 외래어는 따로 사정한다.

## 제 2 장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

### 제 1 절 자 음

제 3 항 다음 단어들은 거센소리를 가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. 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ㄱ	ㄴ	비 고
끄나풀 나팔-꽃 넉	끄나불 나발-꽃 넉	동~, 들~, 새벽~, 동틀 ~
부엌 살-팽이 칸	부억 삼-팽이 간	1. ~막이, 빈~, 방 한 ~ 2. '초가삼간, 윗간'의 경 우에는 '간'임. 재물을 다 없애다.
털어-먹다	떨어-먹다	

제 4 항 다음 단어들은 거센소리로 나지 않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. 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ㄱ	ㄴ	비 고
가을-같이 거시기 분침	가을-카리 거시키 푼침	

제 5 항 어원에서 떨어진 형태로 굳어져서 널리 쓰이는 것은,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. 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ㄱ	ㄴ	비 고
강남-콩 고샅 사글-세 울력-성당	강남-콩 고샅 삭월-세 위력-성당	걸~, 속~ '월세'는 표준어임. 때를 지어서 으르고 험박 하는 일

다만, 어원적으로 원형에 더 가까운 형태가 아직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,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. 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ㄱ	ㄴ	비 고
갈비 갓모  굴-젓 말-걸 물-수란 밀-뜨리다 적-이 휴지	가리 갈모  구-젓 말-젓 물-수란 미-뜨리다 저으기 수지	~구이, ~찜, 갈빗-대 1. 사기 만드는 물레 밀 고리 2. '갈모'는 갓 위에 쓰 는, 유지로 만든 우비  적이-나, 적이나-하면

제 6항 다음 단어들은 의미를 구별함이 없이, 한 가지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. 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ㄱ	ㄴ	비 고
들 둘-째 셋-째 넷-째 빌리다	똥 두-째 세-째 네-째 빌다	생일, 주기 '제 2, 두 번째'의 뜻 '제 3, 세 번째'의 뜻 '제 4, 네 번째'의 뜻 1. 빌려 주다, 빌려 오다 2. '용서를 빌다'는 '빌다' 임.

다만, '둘째'는 십 단위 이상의 서수사에 쓰일 때에 '두째'로 한다.

ㄱ	ㄴ	비 고
열두-째		열두 번째의 뜻은 '열둘 째'로

스물두-째	스물두 개째의 뜻은 '스물둘째'로
-------	--------------------

제 7항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'수-'로 통일한다. 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ㄱ	ㄴ	비 고
수-꿩 수-나사 수-늪 수-사돈 수-소 수-은행나무	수-꿩, 숫-꿩 숫-나사 숫-늪 숫-사돈 숫-소 숫-은행나무	'장끼'도 표준어임.  '황소'도 표준어임.

다만 1. 다음 단어에서는 접두사 다음에서 나는 거센소리를 인정한다. 접두사 '암-'이 결합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. 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ㄱ	ㄴ	비 고
수-강아지 수-개 숫-것 수-기와 수-닭 수-당나귀 수-둘쩌귀 수-돼지 수-병아리	숫-강아지 숫-개 숫-것 숫-기와 숫-닭 숫-당나귀 숫-둘쩌귀 숫-돼지 숫-병아리	

다만 2. 다음 단어의 접두사는 '숫-'으로 한다. 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ㄱ	ㄴ	비 고
숫-양 숫-염소 숫-쥐	수-양 수-염소 수-쥐	

## 제 2 절 모 음

제 8항 양성모음이 음성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다음 단어는 음성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. 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ㄱ	ㄴ	비 고
깡충-깡충 -둥이  발가-숭이  보통이 봉죽 뽕정-다리 아서, 아서라 오뚝-이 주추	깡충-깡충 -둥이  발가-숭이  보통이 봉죽 뽕장-다리 앗아, 앓아라 오뚝-이 주초	큰말은 '깡충깡충'임. ←童-이, 귀-, 막-, 선-, 쌍-, 검-, 바람-, 흰- 센말은 '뽕가숭이', 큰말 은 '벌거숭이, 뽕거숭이' 임.  ←奉尼. ~꾼, ~들다  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말 부사도 '오뚝-이' 임. ←柱礎. 주춧-돌

다만, 어원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다음 단어에서는 양성모음 형태를 그대로 표준어로 삼는다. 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ㄱ	ㄴ	비 고
부조(扶助) 사돈(查頓) 삼촌(三寸)	부주 사돈 삼촌	~금, 부죗-술 발~, 안~ 시~, 의~, 처~

제9항 'ㄹ' 역행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, 다만 다음 단어들은 그러한 동화가 적용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. 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ㄱ	ㄴ	비 고
-내기  냄비 동랭이-치다	-나기  남비 동당이-치다	서울-, 시골-, 신출-, 꾀- -

[붙임 1] 다음 단어는 'ㄹ' 역행동화가 일어나지 아니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. 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ㄱ	ㄴ	비 고
아지랑이	아지랭이	

[붙임 2] 기술자에게는 '-장이', 그 외에는 '-쟁이'가 붙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. 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ㄱ	ㄴ	비 고
미장이 유기장이 멋쟁이 소금쟁이 담쟁이-덩굴 골목쟁이 밭목쟁이	미쟁이 유기쟁이 멋장이 소금장이 담장이-덩굴 골목장이 밭목장이	

제 10항 다음 단어는 모음이 단순화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. 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ㄱ	ㄴ	비 고
피팍-하다 -구면 미루-나무 미룩	피팍-하다/피팩-하다 -구면 미류-나무 미력	←美柳~ ←彌肋. ~보살, ~불, 들~
여느 은-달 으레	여녀 윈-달 으레	만 한 달
케케-묵다 허우대 허우적-허우적	케케-묵다 허위대 허위적-허위적	허우적-거리다

제 11항 다음 단어에서는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하여,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. 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ㄱ	ㄴ	비 고
-구려 각쟁이	-구료 각정이	1. 서울~, 알~, 찰~ 2. 도토리, 상수리 등의 발침은 '각정'임.
나무라다 미수 바라다	나무래다 미시 바래다	미숫-가루 '바람(所望)'은 비표준어 임. ~쌈
상추 시러베-아들	상치 실업의-아들	

주책	주착	←主着. ~망나니, ~없다
지루-하다	지리-하다	←支離.
뛰기	트리	
허드레	허드래	허드렛-물, 허드렛-일
호루라기	호루루기	

제 12 항 '웃-' 및 '윗-'은 명사 '위'에 맞추어 '윗-'으로 통일한다. 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ㄱ	ㄴ	비 고	
윗-넓이	웃-넓이	준말은 '윗동'임.	
윗-눈썹	웃-눈썹		
윗-니	웃-니		
윗-당줄	웃-당줄		
윗-덧줄	웃-덧줄		
윗-도리	웃-도리		
윗-동아리	웃-동아리		
윗-막이	웃-막이		
윗-머리	웃-머리		
윗-목	웃-목		~운동
윗-몸	웃-몸		
윗-바람	웃-바람		
윗-배	웃-배		
윗-벌	웃-벌		수학용어
윗-변	웃-변		
윗-사랑	웃-사랑		
윗-세장	웃-세장		
윗-수염	웃-수염		
윗-입술	웃-입술		
윗-잇몸	웃-잇몸		
윗-자리	웃-자리		
윗-중방	웃-중방		

다만 1.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'위-'로 한다. 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ㄱ	ㄴ	비 고
위-작	웃-작	
위-쪽	웃-쪽	

위-채	웃-채	~구름(上層雲)
위-층	웃-층	
위-치마	웃-치마	
위-턱	웃-턱	
위-팔	웃-팔	

다만 2. '아래, 위'의 대립이 없는 단어는 '웃-'으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. 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ㄱ	ㄴ	비 고
웃-국	윗-국	~걸다
웃-기	윗-기	
웃-돈	윗-돈	
웃-비	윗-비	
웃-어른	윗-어른	
웃-웃	윗-웃	

제 13항 한자 '구(句)'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'귀'로 읽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 하고, '구'로 통일한다. 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ㄱ	ㄴ	비 고	
구법(句法)	귀법	~법(對句法)	
구절(句節)	귀절		
구점(句點)	귀점		
결구(結句)	결귀		
경구(警句)	경귀		
경인구(警人句)	경인귀		
난구(難句)	난귀		
단구(短句)	단귀		
단명구(短命句)	단명귀		
대구(對句)	대귀		~어(成句語)
문구(文句)	문귀		
성구(成句)	성귀		
시구(詩句)	시귀		
어구(語句)	어귀		
연구(聯句)	연귀		
인용구(引用句)	인용귀		
절구(絕句)	절귀		

다만, 다음 단어는 '귀'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. 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ㄱ	ㄴ	비 고
귀-글 글-귀	구-글 글-구	

제 3 절 준 말

제 14 항 준말이 널리 쓰이고 본말이 잘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,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는다. 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ㄱ	ㄴ	비 고
귀찮다 김 짜리 무  미다  뱀 뱀-장어 빔 쌈 생-취 술개 은-갓 장사-치	귀치 않다 기음 또아리 무우  무이다  배암 배암-장어 비음 새암 새암-취 소리개 은-가지 장사-아치	~매다  ~강증, ~말랭이, ~생 채, 가랑~, 갓~, 왜~, 총각~ 1. 털이 빠져 살이 드러 나다. 2. 찢어지다  설~, 생일~ ~바르다, ~바리

제 15 항 준말이 쓰이고 있더라도, 본말이 널리 쓰이고 있으면 본말을 표준어로 삼는다. 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ㄱ	ㄴ	비 고
경황-없다 궁상-떨다 귀이-개 깎새 낙인-찍다 내왕-꾼 뚝-자리 뒤웅-박	경-없다 궁-떨다 귀-개 깎 낙-하다/낙-치다 넙-꾼 뚝 땡-박	



뒷물-대야 마구-잡이 맵자-하다 모이 벽-돌 부스럼  살얼음-판 수두룩-하다 암-죽 어음 일구다 죽-살이 퇴박-맞다 한통-치다	뒷-대야 막-잡이 맵자다 모 벽 부럼  살-판 수둑-하다 암 엄 일다 죽-살 퇴-맞다 통-치다	모양이 제격에 어울리다.  정월 보름에 쓰는 '부럼' 은 표준어임.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[붙임] 다음과 같이 명사에 조사가 붙은 경우에도 이 원칙을 적용한다. 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ㄱ	ㄴ	비 고
아래-로	알-로	

제 16 항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널리 쓰이면서 준말의 효용이 뚜렷이 인정되는 것은, 두 가지를 다 표준어로 삼는다. (ㄱ은 본말이며, ㄴ은 준말임.)

ㄱ	ㄴ	비 고
거짓-부리	거짓-불	작은말은 '가짓부리, 가짓불'임 저녁~
노을	늘	} 모음 어미가 연결될 때에는 준말의 활용형을 인정하지 않음.
막대기	막대	
망태기	망태	
머무르다	머물다	
서두르다	서둘다	
서투르다	서들다	
석새-삼베	석새-베	
시-누이	시-뉘/시-누	
오-누이	오-뉘/오-누	
외우다	외다	외우며, 외워: 외며, 외어
이기죽-거리다	이죽-거리다	

찌꺼기	찌끼	'찌꺼지'는 비표준어임.
-----	----	---------------

제 4 절 단수 표준어

제 17 항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,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 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,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. 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ㄱ	ㄴ	비 고
거든-그리다	저둥-그리다	1. 거든하게 거두어 싸다. 2. 작은말은 '가든-그리다'임.
구어-박다	구워-박다	사람이 한 군데서만 지내다.
귀-고리	귀엣-고리	
귀-뒀	귀-뒀	
귀-지	귀에-지	
까딱-하면	까떡-하면	
꼭두-각시	꼭둑-각시	
내색	나색	감정이 나타나는 얼굴빛
내숭-스럽다	내홍-스럽다	
남남-거리다	얌남-거리다	남남-하다
남남-이	얌남-이	
너〔四〕	네	~돈, ~말, ~밭, ~푼
넉〔四〕	너/네	~냥, ~되, ~섬, ~자
다다르다	다달다	
덜-싸리	대-싸리	
더부룩-하다	더부룩-하다/듬부룩-하다	
-던	-든	선택, 무관의 뜻을 나타내는 어미는 '-든'임.
-던가	-든가	가-든(지) 말-든(지), 보-든(가) 말-든(가)
-던걸	-든걸	
-던고	-든고	
-던데	-든데	
-던지	-든지	
-(으)려고	-(으)리려고/-(으)리라	

-(으)려야

망가-뜨리다

덜치

반빏-아치

보습

본새

봉숭아

빤-따귀

빼개다〔斫〕

빼기다〔誇〕

사자-탈

상-판대기

서〔三〕

석〔三〕

설령〔設令〕

-습니다

시름-시름

썸벅-썸벅

아궁이

아내

어-중간

오금-팽이

오래-오래

-을시다

옹골-차다

우두커니

잠-투정

재봉-틀

짓-무르다

짚-북데기

쪽

-(으)려야/-(으)려야

망그-뜨리다

머루치/메리치

반비-아치

보습/보습

본새

봉숭화

빤-따귀/빤-따구니

빼기다

빼개다

사지-탈

상-판대기

세/석

세

서령

-습니다

시름-시름

썸벅-썸벅

아궁지

안해

어지-중간

오금-팽이

도래-도래

-을습니다

공골-차다

우두머니

잠-투세/잠-주정

자봉-틀

짓-몰다

짚-북세기

쪽

‘반빏’ 노릇을 하는 사람,  
찬비(饑婢). ‘반비’는 밥  
짓는 일을 맡은 계집종

‘봉숭화’도 표준어임.  
‘빤’의 비속어임.  
두 조각으로 가르다.  
뽑내다

~돈, ~말, ~밭, ~푼  
~냥, ~되, ~섬, ~자

먹습니다, 갔습니다, 없  
습니다, 있습니다, 좋습  
니다  
모음 뒤에는 ‘-비니다’임.

꽤지 부르는 소리

작은말은 ‘오도카니’임.

발~, 손~

‘짚북데기’도 비표준어임.  
편(便). 이~, 그~, 저  
~ 다만, ‘아무~쪽’은  
‘쪽’임.

천장(天障)	천정	'천정부지(天井不知)'는 '천정'임
쿄-맹맹이 홍-업다	쿄-맹맹이 홍-협다	

제 5 절 복수 표준어

제 18 항 다음 단어는 ㄱ을 원칙으로 하고, ㄴ도 허용한다.

ㄱ	ㄴ	비 고
네 쇠-	예 소-	-가죽, -고기, -기름, -머리, -뼈
괴다	고이다	물이~, 밀을~.
괴다	꼬이다	어린애를~, 벌레가~.
썩다	썩이다	바람을~.
죄다	조이다	나사를~.
찍다	쪼이다	벌을~.

제 19 항 어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단어 또는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 다 같이 널리 쓰이는 경우에는,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. (ㄱ, ㄴ을 모두 표준어로 삼음.)

ㄱ	ㄴ	비 고
거슴츠레-하다	게슴츠레-하다	
교까	꼬까	~신, ~옷
교린-내	코린-내	
교기(驕氣)	가기	교만한 태도
구린-내	쿠린-내	
꺼림-하다	깨름-하다	
나부랭이	너부렁이	

제 3 장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

제 1 절 고 어

제 20 항 사어(死語)가 되어 쓰이지 않게 된 단어는 고어로 처리하고, 현재 널리 사용되는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. 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ㄱ	ㄴ	비 고
난봉	봉	

낭떠러지 설거지-하다 애달프다 오동-나무 자두	낭 설겅다 애랏다 머귀-나무 오얏	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## 제 2 절 한자어

제 21 함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용도를 잃게 된 것은, 고유어 계열의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. 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ㄱ	ㄴ	비 고
가루-약 구들-장 길품-삿 까막-눈 꼭지-미역 나무-갓 늪-다리 두껍-달이 떡-압죽 마른-갈이 마른-빨래 메-찰떡 박달-나무 밥-소라 사래-논	말-약 방-돌 보행-삿 맹-눈 총각-미역 시장-갓 노닥다리 두껍-창 병-압죽 건-갈이 건-빨래 반-찰떡 배달-나무 식-소라 사래-답	큰 늦그릇 묘지거나 마음이 부쳐 먹 는 땅
사래-밭 삿-말 성냥 숫울-무늬 외-지다 웁-과 잎-담배 잔-돈 조-당수 죽데기 지겅-다리	사래-전 삿-마 화괵 숫울-문(一紋) 벽-지다 둥-과 잎-초 잔-전 조-당죽 피-죽 목-밭	
		'죽더기'도 비표준어임. 지겅 등밭의 양쪽 다리

짐-꾼	부지-꾼(負持-)	‘백마’는 표준어임.
푼-돈	푼-전/푼-전	
흰-말	백-말/ 부루-말	
흰-죽	백-죽	

제 22 항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생명력을 잃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면, 한자어 계열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. 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ㄱ	ㄴ	비 고
개다리-소반	개다리-밥상	馬房~
겹-상	맞-상	
고봉-밥	높은-밥	
단-벌	흙-벌	
마방-집	마바리-집	
민망-스럽다/면구-스럽다	민주-스럽다	
다		
방-고래	구들-고래	
부항-단지	뜸-단지	
산-누에	멧-누에	
산-줄기	멧-줄기/멧-밭	
수-삼	무-삼	
심-도두개	불-도두개	
양-파	등근-파	
어질-병	어질-머리	
윤-달	군-달	
장력-세다	장성-세다	
제-석	젓-돛	
총각-무	알-무/알타리-무	
칫-술	잇-술	
포수	총-맹이	

제 3 절 방 언

제 23 항 방언이던 단어가 표준어보다 더 널리 쓰이게 된 것은,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. 이 경우, 원래의 표준어는 그대로 표준어로 남겨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도 표준어로 남겨 둠.)

ㄱ	ㄴ	비 고
멍게	우렁쟁이	

몰-방개 애-순	선두리 어린-순	
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

제 24 항 방언이던 단어가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 표준어이던 단어가 안 쓰이게 된 것은, 방언이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. 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ㄱ	ㄴ	비 고
귀밑-머리 까-몽개다 막상 빈대-떡 생인-손 역-겹다 코-주부	컷-머리 까-무느다 마기 빈자-떡 생안-손 역-스럽다 코-보	준말은 '생-손'임

#### 제 4 절 단수 표준어

제 25 항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, 그 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,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. 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ㄱ	ㄴ	비 고
-게끔 겸사-겸사 고구마 고치다 골목-쟁이 광주리 괴롱 국-물 군-표 길-잡이 까다롭다	-게서리 겸지-겸지/겸두-겸두 참-감자 낫우다 골목-자기 광우리 호구 말-국/말-국 군용-어음 길-앞잡이 까담-스럽다/까탈-스럽다	병을~.  자루를 박는 부분  '길라잡이'도 표준어임.
까치-발 꼬창-모  나룻-배 납-도리	까치-다리 말뚝-모  나루 민-도리	선반 따위를 받치는 물건 꼬창이로 구멍을 뚫으면 서 심는 모 '나루(津)'는 표준어임.

농-지거리

다사-스렵다

다오

담배-꽁초

담배-설대

대장-일

뒤져-내다

뒤통수-치다

등-나무

등-매기

등잔-걸이

떡-보

톡딱-단추

매-만지다

먼-발치

머느리-발톱

명주-불이

목-메다

밀짚-모자

바가지

바람-꼭지

반-나절

반두

버젓-이

본-받다

부각

부끄러워-하다

부스러기

부지깡이

부항-단지

볶으락-푸르락

비커-덩이

기롱-지거리

다사-하다

다구

담배-꼬투리 / 담배-꽁

치 / 담배-꽁추

대-설대

성냥-일

뒤어-내다

뒤꼭지-치다

등-취

등-떠리

등경-걸이

떡-층이

딸꾹-단추

우미다

먼-발치기

뿔-발톱

주-사니

목-멧히다

보릿짚-모자

열-바가지 / 열-박

바람-고다리

나절-가웃

독대

귀연-히

범-받다

다시마-자반

부끄리다

부스러지

부지깡이

부항-항아리

푸르락-볶으락

옆-사리미

다른 의미의 '기롱지거리'

는 표준어임.

간섭을 잘 하다.

이리~,

'등'의 낮은 말

튜브의 바람을 넣는 구멍  
에 붙은, 쇠로 만든 꼭지

그물의 한 가지

부스러움에서 피고름을 빨  
아내기 위하여 부항을 붙  
이는 데 쓰는 자그마한  
단지

김멜 때에 흙덩이를 옆으  
로 빼내는 일, 또는 그  
흙덩이



빙충-이  
빠-뜨리다  
뻗뻗-하다  
뿔-내다  
사로-잠그다

살-풀이  
상투-쟁이  
새앙-손이  
삿-벌  
선-머슴  
섭섭-하다  
속-말

손목-시계  
손-수레  
쇠-고랑  
수도-꼭지  
숙성-하다  
순대  
술-고래

식은-땀  
신기-롭다  
쌍둥-밤  
쑤살-같이  
아주  
안-걸이  
안다미-쑤우다

안쓰럽다  
안절부절-못하다  
앉은뱅이-저울  
알-사탕  
암-내  
앞-지르다  
애-벌레  
얇은-피  
언뜻  
언제나

빙충-맛이  
빠-치다  
왜긋다  
느물다  
사로-채우다

살-막이  
상투-꼬부랑이  
생강-손이  
새벽-벌  
푹-머슴  
애운-하다  
속-소리

팔목-시계/팔뚝-시계  
손-구루마  
고랑-쇠  
수도-고동  
숙-지다  
팔집  
술-꾸러기/술-부대/술-보/술-푸대

찬-땀  
신기-스럽다  
죽-밤  
쑤살-로  
영판  
안-늪시  
안다미-시키다

안-슬프다  
안절부절-하다  
앉은-저울  
구슬-사탕  
결땀-내  
따라-먹다  
어린-벌레  
물탄-피  
편뜻  
노다지

작은말은 '뱅충이'  
'빠트리다'도 표준어임.

자물쇠나 빗장 따위를 반  
정도만 걸어 놓다.

상투 튼 이를 놀리는 말

국악 용어 '속소리'는 표  
준어임.

'구루마'는 일본어임.

'신기-하다'도 표준어임.

씨름 용어  
제가 담당할 책임을 남에  
게 넘기다.

열록-말 -에는 열심-히 입-담 자배기 전봇-대 주책-없다  쥐락-펴락 -지만 짓고-땡 얹은-작 찹-쌀 청대-콩 찰-범	워라-말 -엘랑 열심-으로 말-담 너벅지 전선-대 주책-이다  펴락-쥐락 -지만서도 지어-땡/짓고-땡이 짜튼-작 이-찰쌀 푸른-콩 갈-범	'주착→주책'은 제11항 참조  ←-지마는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제 5 절 복수 표준어

제 26항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,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.

복 수 표 준 어	비 고
가는-허리/잔-허리 가락-옛/가래-옛 가물/가물 가없다/가엎다	가없어/가여워, 가없 은/가여운
감감-무소식/감감-소식 개수-통/설거지-통	'설것다'는 '설거지-하다' 로
개숫-물/설거지-물 갱-옛/검은-옛 -거리다/-대다 거위-배/횃-배 것/해 게올러-빠지다/게올러-터지다 고깃-간/푸줏-간	가물-, 출렁-  내~, 네~, 뉘~  '고깃-관, 푸줏-관, 다림-방'은 비표준어임.
곰곰/곰곰-이 관제-없다/상관-없다	

교정-보다/준-보다  
 구들-재/구재  
 귀통-머리/귀통-배기  
 극성-떨다/극성-부리다  
 기세-부리다/기세-피우다  
 기승-떨다/기승-부리다  
 깃-저고리/배내-옷/배넛-저고리  
 꼬까/매매/고까  
 꼬리-별/살-별  
 꽃-도미/꽃-듬  
 나귀/당-나귀  
 날-걸/세-뿔

내리-글씨/세로-글씨  
 녁쿨/덩쿨  
 녁/쪽  
 눈-대중/눈-어림/눈-짐작  
 느리-광이/느림-보/늘-보  
 늦-모/마냥-모  
 다기-지다/다기-차다  
 다달-이/매-달  
 -다마다/-고말고  
 다박-나룻/다박-수염  
 닭의-장/닭-장  
 댛-돌/뿔-돌  
 댛-창/걸-창  
 독장-치다/독판-치다  
 동자-기둥/쪼구미  
 패지-감자/똥만지  
 되우/되통/되게  
 두동-무니/두동-사니

뿔-갈망/뿔-감당  
 뿔-말/뿔-소리  
 들락-거리다/들랑-거리다  
 들락-날락/들랑-날랑  
 판-전/판-청  
 땅-콩/호-콩  
 뿔-감/뿔-거리  
 -뜨리다/-트리다

‘귀통이’의 비어임.

~신, ~옷

옷판의 썰발 다음의 셋째 발

‘덩쿨’은 비표준어임.  
 동~, 서~

←만이양-모

34

옷놀이에서, 두 동이 한 데 어울려 가는 말

깨-, 떨어-, 쏘-

뜬-것/뜬-귀신  
마룻-줄/옹충-줄

마-파람/얏-바람  
만장-판/만장-중(滿場中)  
단큼/만치  
말-동무/말-벗  
매-같이/매-조미  
매-풍/목-매  
먹-새/먹음-새

멀찌감치/멀찌가니/멀찍이  
며통/산-며/산-며통  
면-치레/외면-치레  
모-내다/모-심다  
모쪼록/아무쪼록  
목판-되/모-되  
목화-씨/면화-씨  
무심-결/무심-중  
물-봉숭아/물-봉선화  
물-부리/빨-부리  
물-심부름/물-시중  
물추리-나무/물추리-막대  
물-타작/진-타작  
민둥-산/벌거숭이-산  
...-층/아래-층  
...-밭/밭-밭  
바른/오른(右)  
밭-모가지/밭-목쟁이  
버들-강아지/버들-개지  
벌레/버러지

번덕-스럽다/번덕-맞다  
보-조개/불-우물  
보통-내기/여간-내기/예사-내기  
불-따구니/불-통이/불-매기  
부침개-질/부침-질/지짐-질

불뚱-앉다/등화-지다/등화-앉다  
불-사르다/사르다

뚫대에 매어놓은 줄. '이  
어줄'은 비표준어임.

'먹음-먹이'는 비표준어  
임.

모-내기/모-심기

~손, ~쪽, ~편  
'밭목'의 비속어임.

'벌거지, 벌러지'는 비표  
준어임.

'행-내기'는 비표준어임.  
'불'의 비속어임.  
'부치개-질'은 비표준어  
임.

비발/비용(費用)

뽕두라지/뽕루지

살-팽이/삼

삼살-개/삼사리

상두-꾼/상여-꾼

상-씨름/소-걸이

생/새양/생강

생-뿔/새양-뿔/생강-뿔

생-철/양-철

서럽다/쉽다

서방-질/화냥-질

성글다/성기다

-(으)세요/-(으)셔요

송이/송이-버섯

수수-짱/수숫-대

술-안주/안주

-스레하다/-스름하다

시늬-말/흉내-말

시새/세사(細沙)

신/신발

신주-보/독보(襠褌)

심술-꾸러기/심술-쟁이

썩쓰레-하다/썩쓰름-하다

아귀-새다/아귀-차다

아래-위/위-아래

아무튼/어떻든/어쨌든/하여튼/여하튼

앉음-새/앉음-앉음

알은-척/알은-척

애-같이/애벌-같이

애꾸눈-이/외눈-박이

양념-감/양념-거리

어금버금-하다/어금지금-하다

어기여차/어여차

어림-잡다/어림-치다

어이-없다/어처구니-없다

어저께/어제

삼-피

‘상도-꾼, 향도-꾼’은 비표준어임.

‘쇠뿔’의 형용

1. ‘서양-철’은 비표준어임.

2. ‘生鐵’은 ‘무쇠’임.

‘설다’는 비표준어임.

거무-, 발그-

‘외대-박이, 외눈-뿔이’는 비표준어임.

언덕-바지 / 언덕-배기  
일렁-뚱뚱 / 엄병-땡  
여왕-벌 / 장수-벌  
여쭙다 / 여쭙다  
여태 / 입때  
여태-껏 / 이제-껏 / 입때-껏  
역성-들다 / 역성-하다

연-달다 / 잇-달다  
옛-가락 / 옛-가래  
옛-기름 / 옛-길금  
옛-반대기 / 옛-자박  
오사리-잡놈 / 오색-잡놈

옥수수 / 강냉이

왕골-기직 / 왕골-자리  
외겹-실 / 외울-실 / 훌-실

외손-잡이 / 한손-잡이  
육십-꾸러기 / 육십-쟁이  
우레 / 천둥  
우지 / 울-보  
올려-대다 / 올려-메다  
의심-스럽다 / 의심-쩍다  
-이어요 / -이어요

이틀-거리 / 당-고금  
일일-이 / 하나-하나  
일찌감치 / 일찌거니  
입찬-말 / 입찬-소리  
자리-웃 / 잠-웃  
자물-쇠 / 자물-통  
장가-가다 / 장가-들다

재롱-떨다 / 재롱-부리다  
제-가꿈 / 제-각기  
좁-처럼 / 좁-체

줄-꾼 / 줄-잡이  
중신 / 중매

‘여직’은 비표준어임.  
‘여직-껏’은 비표준어임.  
‘편역-들다’는 비표준어  
임.

‘오합-잡놈’은 비표준어  
임.  
~떡, ~묵, ~밥, ~튀  
김

‘홀겹-실, 울-실’은 비표  
준어임.

우렛-소리 / 천둥-소리

학질의 일종임.

‘서방-가다’는 비표준어  
임.

‘좁-체로, 좁-해선, 좁  
-해’는 비표준어임.



계집[계:집/계:집]	계시다[계:시다/계:시다]
시계[시계/시계](時計)	연계[연계/연계](連繫)
대별[대별/대별](袞別)	개폐[개폐/개폐](開閉)
혜택[혜:택/혜:택](惠澤)	지혜[지혜/지혜](知慧)

다만 3.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‘-니’는 [ ]로 발음한다.

닐리리    닝큼    무너    띄어쓰기    써어    띄어    회어    희뻘다  
희망    유희

다만 4.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‘의’는 [ ]로, 조사 ‘의’는 [기]로 발음함도 허용한다.

주의[주의/주이]    협의[허브/허비]    우리의[우리의/우리애]  
강의의[강의의/강이애]

### 제 3 장 음의 길이

제 6항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되, 단어의 첫음절에서만 긴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(1) 눈보라[눈:보라]    말씨[말:씨]    밤나무[밤:나무]    많다[만:타]  
    멀리[멀:리]      벌리다[벌:리다]

(2) 첫눈[천눈]      참말[참말]      쌍둥밤[쌍둥밤]      수많은[수:마니]  
    눈멀다[눈멀다]    떠벌리다[떠벌리다]

다만, 합성어의 경우에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분명한 긴소리를 인정한다.

반신반의 [반:신 바:닉/반:신 바:니]    재삼재사[재:삼 재:사]  
(불임) 용언의 단음절 어간에 어미 ‘-아/-어’가 결합되어 한 음절로 축약되는 경우에도 긴소리로 발음한다.

보아→봐[봐: ]    기어→겨[겨: ]    되어→돼[돼: ]  
    두어→뒤[뒤: ]    하여→해[해: ]

다만, ‘오아→와, 지어→져, 찌어→찌, 치어→쳐’ 등은 긴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.

제 7항 긴소리를 가진 음절이라도,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짧게 발음한다.

1. 단음절인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  
    감다[감:따]-감으니[가므니]      밝다[밥:따]-밝으면[발쁘면]  
    신다[신:따]-신어[시너]      알다[알:다]-알아[아라]

다만,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이다.

    꼴다[꼴:다]-꼴어[꼬:러]      뺏다[뺏:따]-뺏은[뺏:븐]  
    벌다[벌:다]-벌어[버:러]      썰다[썰:다]-썰어[써:러]  
    없다[엷:따]-없으니[엷:쓰니]

2. 용언 어간에 피동, 사동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

    감다[감:따]-감기다[감기다]      꼬다[꼬:다]-꼬이다[꼬이다]  
    밝다[밥:따]-밝히다[발피다]

다만,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이다.

    꼴리다[꼴:리다]      벌리다[벌:리다]      없애다[엷:싸다]



(붙임) 다음과 같은 복합어에서는 본디의 길이에 관계 없이 짧게 발음한다.  
 밀-물      셀-물      쓴-살-같이      작은-아버지

#### 제 4 장 받침의 발음

제 8 항 받침소리로는 ‘ㄱ, ㄴ, ㄷ, ㄹ, ㅁ, ㅂ, ㅇ’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.

제 9 항 받침 ‘ㄱ, ㅋ’, ‘ㅅ, ㅆ, ㅈ, ㅊ, ㅌ’, ‘ㅍ’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[ㄱ, ㄷ, ㅂ]으로 발음한다.

닭다[닥따]	키읔[키욱]	키읔과[키윽파]	웃[온]
웃다[웃:따]	있다[읷따]	젓[질]	빚다[빙따]
꽃[꼇]	쫓다[쫓따]	술[순]	뺨다[뺨:따]
앞[압]	엎다[엎따]		

제 10 항 겹받침 ‘ㄲ’, ‘ㄴ’, ‘ㄹ’, ‘ㄷ’, ‘ㅌ’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[ㄱ, ㄴ, ㄷ, ㅂ]으로 발음한다.

넋[넉]	넋과[넉파]	앉다[안따]	여덟[여덜]
넋다[넉따]	외곶[외곷]	핥다[할따]	값[갑]
없다[엷:따]			

다만, ‘받-’은 자음 앞에서 [팍]으로 발음하고, ‘넋-’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[넉]으로 발음한다.

- (1) 밝다[팍:따]      밝소[팍:쏘]      밝지[팍:찌]      밝는[팍:는→팍:는]  
 밝게[팍:게]      밝고[팍:꼬]
- (2) 넋-죽하다[넉쭈카다]      넋-동글다[넉똥글다]

제 11 항 겹받침 ‘ㄷ’, ‘ㅌ’, ‘ㅍ’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[ㄱ, ㅁ, ㅂ]으로 발음한다.

닭[닥]	훈과[훈파]	맑다[막따]	늑지[늑찌]
삼[삼:]	좁다[집:따]	웁고[웁꼬]	웁다[웁따]

다만, 용언의 어간 말음 ‘ㄷ’은 ‘ㄱ’ 앞에서 [ㄷ]로 발음한다.

맑게[말게]	물고[물꼬]	읽거나[일꺼나]
--------	--------	----------

제 12 항 받침 ‘ㅎ’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.

1. ‘ㅎ(ㅎ, ㅎ)’ 뒤에 ‘ㄱ, ㄷ, ㅌ’이 결합되는 경우에는,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[ㅋ, ㅌ, ㅊ]으로 발음한다.

농고[노코]	종던[조:던]	쌍지[쌍찌]	맏고[만:코]
안던[안턴]	닭지[달찌]		

(붙임 1) 받침 ‘ㄱ(ㄷ), ㄷ, ㅌ(ㄹ), ㅌ(ㄴ)’이 뒤 음절 첫소리 ‘ㅎ’과 결합되는 경우에도, 역시 두 음을 합쳐서 [ㅋ, ㅌ, ㅊ, ㅊ]으로 발음한다.

각하[가카]	먹히다[머키다]	밝히다[발키다]	만형[마탕]
좁히다[조피다]	넋히다[넉피다]	펼치다[표치다]	안히다[안치다]

(붙임 2) 규정에 따라 ‘ㄷ’으로 발음되는 ‘ㅅ, ㅆ, ㅈ, ㅊ’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.

웃 한 벌[오탄벌]      낮 한때[나탄때]      꽃 한 송이[꼬탄송이]  
술하다[수타다]

2. 'ㅎ(하, 하)' 뒤에 'ㅅ'이 결합되는 경우에는, 'ㅅ'을 [ㅆ]으로 발음한다.  
당소[다ㅆ]      많소[만:ㅆ]      싫소[실ㅆ]

3. 'ㅎ'뒤에 'ㄴ'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[ㄴ]으로 발음한다.  
농는[논는]      쌓네[싼네]

[붙임] '하, 하' 뒤에 'ㄴ'이 결합되는 경우에는, 'ㅎ'을 발음하지 않는다.

안네[안네]      안는[안는]      풀네[풀네→풀레]      풀는[풀는→풀른]

• '풀네[풀네→풀레], 풀는[풀는→풀른]'에 대해서는 제 20 항 참조

4. 'ㅎ(하, 하)'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'ㅎ'을 발음하지 않는다.

남은[나은]      놓아[노아]      쌓이다[싸이다]      많아[마:나]

안은[아는]      닳아[다라]      싫어도[시러도]

제 13 항    흘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,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,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.

까아[까까]      웃이[오시]      있어[이씨]      낮이[나지]

꽃아[꼬자]      꽃을[꼬출]      좇아[꼬차]      밭에[바테]

앞으로[아프로]      덮이다[더피다]

제 14 항    접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,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옛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.(이 경우, 'ㅅ'은 된소리로 발음함.)

넌이[넉씨]      앉아[안자]      닭을[달글]      젊어[절머]

끓이[골씨]      할아[할타]      읊어[을퍼]      값을[갑쓸]

없어[업:씨]

제 15 항    받침 뒤에 모음 'ㅏ, ㅑ, ㅓ, ㅕ, ㅗ'들로 시작되는 실질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,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.

밭 아래[바다래]    늪 앞[느밭]      젓어미[저더미]    맛없다[마덥다]

겉웃[거돋]      헛웃음[허두슴]    꽃 위[꼬뒤]

다만, '맛있다, 멋있다'는 [마신타], [머신타]로도 발음할 수 있다.

[붙임] 접받침의 경우에는, 그 중 하나만을 옮겨 발음한다.

넌 없다[너겍따]      닭 앞에[다가페]      값어치[가버치]

값있는[가빈는]

제 16 항    한글 자모의 이름은 그 받침 소리를 연음하되, 'ㄷ, ㅈ, ㅊ, ㅋ, ㅌ, ㅍ, ㅎ'의 경우에는 특별히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.

디글이[디고시]      디글을[디고슬]      디글에[디고세]

지웃이[지오시]      지웃을[지오슬]      지웃에[지오세]

치웃이[치오시]      치웃을[치오슬]      치웃에[치오세]

키웁이[키오기]      키웁을[키오글]      키웁에[키오게]

티을이[티오시]      티을을[티오슬]      티을에[티오세]

피웁이[피오비]      피웁을[피오블]      피웁에[피오베]

히음이[히으시]

히음을[히으술]

히음에[히으세]

## 제 5 장 음의 동화

제 17 항 받침 ‘ㄷ, ㅌ(ㅈ)’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‘ㅣ’와 결합되는 경우에는, [스, 츠]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.

곧이듣다[고지듣따]

굳이[구지]

미닫이[미다지]

땀받이[땀바지]

밭이[바치]

벼훔치[벼홀치]

[붙임] ‘ㄷ’ 뒤에 접미사 ‘히’가 결합되어 ‘티’를 이루는 것은 [치]로 발음한다.

굳히다[구치다]

닫히다[다치다]

묻히다[무치다]

제 18 항 받침 ‘ㄱ(ㄲ, ㅋ, ㆁ, ㄷ), ㄷ(ㄱ, ㆁ, ㅌ, ㅍ, ㅈ, ㅊ), ㅌ(ㄱ, ㆁ), ㅍ(ㄱ, ㆁ, ㅌ, ㅍ)’은 ‘ㄴ, ㄹ’ 앞에서 [ㅇ, ㄴ, ㄹ]으로 발음한다.

먹는[멍는]

국물[궁물]

깎는[깡는]

키움만[키움만]

몹몹이[몽목씨]

끓는[궁는]

훔만[훙만]

닫는[단는]

짓는[진:는]

웃맵시[운맵시]

있는[인는]

맞는[만는]

젓명울[전명울]

쫓는[죤는]

꽃망울[꼰망울]

붙는[분는]

놓는[논는]

잡는[잠는]

밥물[밤물]

앞마당[암마당]

밟는[밤:는]

음는[음는]

없는[엄:는]

값매다[감매다]

[붙임]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.

책 넣는다[챙넌는다]

훔 말리다[훙말리다]

웃 맞추다[온마추다]

밥 먹는다[밤멍는다]

값 매기다[감매기다]

제 19 항 받침 ‘ㄹ, ㅇ’ 뒤에 연결되는 ‘ㄹ’은 [ㄴ]으로 발음한다.

담력[담:녁]

침략[침낙]

강릉[강능]

항로[항노]

대통령[대:동녕]

[붙임] 받침 ‘ㄱ, ㅍ’ 뒤에 연결되는 ‘ㄹ’도 [ㄴ]으로 발음한다.

막론[막논→망논]

백리[백니→뱅니]

협력[협녜→협녁]

십리[십니→십니]

제 20 항 ‘ㄴ’은 ‘ㄹ’의 앞이나 뒤에서 [ㄴ]로 발음한다.

(1) 난로[날:로] 신라[실라] 천리[철리] 광한루[광:할루]

대관령[대:팔녕]

(2) 칼날[칼탈]

물난리[물탈리]

줄넘기[줄럼기]

할는지[할튼지]

[붙임] 첫소리 ‘ㄴ’이 ‘ㄹ’, ‘ㅍ’ 뒤에 연결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.

닭는[달튼]

푹는[푹튼]

할네[할녜]

다만,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‘ㄹ’을 [ㄴ]으로 발음한다.

의견란[의:견난]

임진란[임:진난]

생산량[생산냥]

결단력[결판녜]

공권력[공권녜]

동원명[동:원녕]

상견례[상견녜]

횡단로[횡단노]

이원론[이:원논]

입원료[이원뇨]

구근류[구근뉴]

제 21 항 위에서 지정한 이외의 자음동화는 인정하지 않는다.

감기[감:기](×[강:기])

웃감[उन감](×[옥감])

있고[인꼬](×[익꼬])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꽃길[꼇길](×[꼭길])  
 젓먹이[전머기](×[점머기])              문법[문뻬](×[뉘뻬])  
 꽃밭[꼇판](×[꼭판])

제 22 항 다음과 같은 용언의 어미는 [어]로 발음함을 원칙으로 하되, [여]로 발음함도 허용한다.

되어[되어/되여],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피어[피어/피여]  
 (불임) '이오, 아니오'도 이에 준하여 [이요, 아니요]로 발음함을 허용한다.

### 제 6 장 경 음 화

제 23 항 받침 'ㄱ(ㄱ, ㅋ, ㆁ, ㄷ, ㄷ, ㄷ, ㄷ, ㄷ), ㄷ(ㄷ, ㅌ, ㅌ, ㅌ, ㅌ), ㅂ(ㅂ, ㅃ, ㅃ, ㅃ)' 뒤에 연결되는 'ㄱ, ㄷ, ㅂ, ㅌ, ㅌ'은 된소리로 발음한다.

국밥[국뻬]	깎다[깎따]	넙반이[넙빠지]	샷돈[샷돈]
닭장[닥장]	취범[취뻬]	뽕대다[뽕때다]	웃고름[웃꼬름]
있던[인뉘]	꽃고[꼇꼬]	꽃다발[꼇따발]	낫설다[낫설다]
발갈이[발까리]	술전[술뉘]	곱들[곱뉘]	엿개[엿개]
엿집[엿집]	넙죽하다[넙주카다]	음조리다[음쪼리다]	
값지다[갑찌다]			

제 24 항 어간 받침 'ㄴ(ㄴ), ㄷ(ㄷ)'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'ㄱ, ㄷ, ㅌ, ㅌ'은 된소리로 발음한다.

신고[신:꼬]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꺾안다[껴안따]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앉고[안꼬]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엮다[언따]  
 삼고[삼:꼬]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더듬지[더뉘찌]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닭고[담:꼬]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꺾지[점:찌]  
 다만, 피동, 사동의 접미사 '기'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.  
 안기다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감기다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굶기다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옮기다

제 25 항 어간 받침 'ㄷ, ㅌ'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'ㄱ, ㄷ, ㅌ, ㅌ'은 된소리로 발음한다.

넙게[넙게]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할다[할따]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훑소[훑쏘]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뺨지[뺨:찌]

제 26 항 한자어에서, 'ㄱ' 받침 뒤에 연결되는 'ㄷ, ㅌ, ㅌ'은 된소리로 발음한다.

갈등[갈뉘]	발등[발뉘]	절도[절뉘]	말살[말살]
불소[불쏘](弗素)	일시[일씨]	갈증[갈뉘]	물질[물질]
발전[발뉘]	물상식[물쌍식]	불세출[불세출]	

다만, 같은 한자가 접쳐진 단어의 경우에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.  
 허허실실[허허실실](虛虛實實)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절절-하다[절절하다](切切-)

제 27 항 관형사형 '-(으)ㄹ' 뒤에 연결되는 'ㄱ, ㄷ, ㅌ, ㅌ, ㅌ'은 된소리로 발음한다.

할 것을[할꺼슬]	갈 데가[갈떼가]	할 바를[할빠를]
할 수는[할쑤는]	할 적에[할찌게]	갈 곳[갈꼇]
할 도리[할도리]	만날 사람[만날싸람]	

다만, 끊어서 말할 적에는 예사소리로 발음한다.



1 연대[일련대]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먹을 샷[머글린]

다만, 다음과 같은 단어에서는 ‘ㄴ(ㄹ)’음을 첨가하여 발음하지 않는다.

6·25[유기오]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3·1[사밀절]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송별-연[송:벼련]

동용-문[동용문]

제 30 항 사이시옷이 붙은 단어는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.

1. ‘ㄱ, ㄷ, ㅂ, ㅅ, ㅈ’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는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사이시옷을 [ㄷ]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.

넋가[내:까/넋:까]            샷길[새:길/샷:길]            빨랫돌[빨래돌/빨랜돌]  
 콧둥[코둥/콧둥]            깃발[기빨/깃빨]            대팻밥[대:괘팻/대:괘팻]  
 햇살[해살/햇살]            배속[배쑥/뱃쑥]            배전[배쩨/뱃쩨]  
 고갯짓[고개쩨/고갯쩨]

2. 사이시옷 뒤에 ‘ㄴ, ㄹ’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[ㄴ]으로 발음한다.

콧날[콧날→콘날]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아랫니[아랜니→아랜니]  
 뒷마루[뒤틀마루→뒸마루]            뱃머리[뱃머리→뱃머리]

3. 사이시옷 뒤에 ‘이’음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[ㄴㄴ]으로 발음한다.

베갯잇[베갯닐→베갯닐]    갯잇[갯닐→갯닐]            나뭇잎[나뭇닐→나뭇닐]  
 도리갯열[도리갯닐→도리갯닐]    뒸웃[뒸눈→뒸눈]